

# 수표교 (水標橋) 다리 밟기



일시: 1997. 10.15~10.17      장소: 전북익산시 공설운동장



## 수표교(水標橋) 다리밟기 유래

다리밟기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전해 내려오는 세시풍속의 하나로 高麗때부터 매년 정월 대보름을 전후하여 각자 자기 나이 수 대로 다리를 밟으면 그해에 다리(脚)에 병이나지 않을뿐만 아니라 1년 내내 재앙을 막는다고 하는 신앙적인 풍속이 있었다.

이러한 풍습이 조선조까지 전해지면서 수표교(水標橋), 광통교(廣通橋), 염천교(鹽川橋), 살곶이 다리(箭串橋), 아현교, 마포교, 과천교등에서 다리밟기를 했는데 장안에서는 청계천(淸溪川)의 수표교(水標橋)와 광통교(廣通橋) 다리밟기가 유명하였고, 문밖에서는 살곶이(箭串橋)다리밟기와 과천다리밟기가 유명했었다.

정월대보름 다리밟기에는 일반서민은 물론 상류층의 양반들까지 많은 남녀노소가 밤을 지새며 다리밟기에 참여 하였기 때문에 다리마다 북새통을 이루었으므로, 양반들은 대보름 하루전인 14일 저녁에 수표교에서 다리를 밟았는데 이것을 “양반 다리밟기” 또는 “양반 수표교 다리밟기”라고 하였다.

이러한 다리밟는 풍습은 조선조후기에 이르러 다리만 밟는 것이 싱겁다 하여 육조(六曹)에서 가무별감(歌舞別監)에게 명하여 흥겨운 가무, 연희(歌舞演戲)를 곁들이라



해서 답교(踏橋)놀이의 각 배역이 정해지면서 선소리산타령패도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순수한 수표교 다리밟기에서 다리밟기(踏橋)놀이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세구연심(歲久年深), 해가 거듭 할수록 격식을 갖춘 흥겨운 우리 고유 전통민속놀이가 제대로 전승되지 못한 것은 일제의 한민족 문화말살 정책으로 1925년경을 마지막으로 다리밟기가 중단되었다가 1969년 1월 한국민요연구회 주최로 김천흥선생님과 고인이 된 허호영, 이충선씨가 주축이 되어 명동의 국립극장에서 발표공연을 가졌고, 다음해인 1970년 정월대보름에는 장충단 공원으로 옮겨 놓은 청계천 수표교에서 두 번째 공연을 한바 있다.

이번에 출판되는 “수표교 다리밟기”는 유년기(幼年期)에 수표교에서 다리밟기를 할 때 참여하였던 김천흥(金千興)선생님(89세)의 생생한 고증과, 1970년 정월대보름을 기해 김천흥선생님에 의해 수표교에서 두 번째 다리밟기를 할 때 선소리배역으로 참여했던 민요장고전수소 원장 박상옥(51세)씨가 작품을 구성하고, 연출을 담당하여 복원한 것이다.



# 수표교(水標橋) 다리밟기

## 제1과장 양반다리 밟기

동근 보름달이 산마루에 둥실 떠 오르고 다리 양편에서는 어린이들의 달맞이 쥐불놀이 한창일 때 다리 우측에서는 정월 대보름 흥수맥이가 진행되는데 이때에 악사들의 장단은 잣은모리로 진행되고 다리 위에서 양반들이 자기 나이대로 다리위를 왔다갔다하는 양반다리밟기가 시작된다.







## 제2과장 놀이패다리밟기

놀이패는 악사들의 굿거리장단 연주에 맞추어 다리밟기를 하는데 이때에 기수(旗手), 악사, 홍수맥이팀이 합류, 집사, 별감, 무동, 상좌, 왜장녀, 곤나쟁이, 평민, 선소리산타령패 등이 다리위로 올라가 흥겹게 놀면서 다리를 왕복하다가 놀이패는 다리에서 내려오고 양반은 계속 다리밟기를 한다.



### 제3과장 판소고와 선소리산타령

양반다리밟기가 계속되는 동안 평민과 놀이패 등 모든 사람들은 다리 아래로 내려와 ㄷ자형으로 둘러서면 판소고를 들은 선소리산타령패가 등장하여 덩부리산 장단으로 판소고 놀이를 하다가 선소리산타령으로 이어진다. 이때 놀이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은 선소리장단에 맞추어 신명나게 춤을 춘다.





#### 제4과장 무동춤

악사들의 늦은 타령 장단에 맞추어 무동춤을 출 때 소무, 별감, 집사, 상좌, 왜장녀, 곤나쟁이, 평민등이 자리를 바꿔가며 춤을 춘다. 이때 선소리산타령패가 합세하여 한판춤을 추는데 이때가 춤판의 결정을 이룬다.





## 제5과장 뒷풀이

모갑이가 방아타령의 전주곡을 내면 놀이에 참여한 전체인원이 방아타령, 양산도, 잣은 방아타령, 경북궁타령등을 부른다. 소리가 한참 진행되다가 잣은 방아타령으로 넘어가면 전체인원이 다리위로 올라가 다시한번 다리를 밟은 다음 다리아래로 내려오면 뒷풀이는 모두 끝나게 된다.





## 出演人員

### 배역

- |                |                  |
|----------------|------------------|
| ○ 기 수 : 8명     | ○ 소 무 : 20명      |
| ○ 악 사 : 18명    | ○ 상 좌 : 1명       |
| ○ 흥수 맥이 : 4명   | ○ 상좌 무동 : 1명     |
| ○ 선 소 리 : 30명  | ○ 무 동 : 10명      |
| ○ 가 무 별 감 : 2명 | ○ 민 무 동 : 11명    |
| ○ 집 사 : 2명     | ○ 쥐 불 놀 이 : 8명   |
| ○ 왜 장 녀 : 2명   | ○ 양 반 ( 남 ) : 5명 |
| ○ 곤 나 쟁 이 : 2명 | ( 여 ) : 5명       |
| ○ 평 민 : 2명     |                  |



# 考證 ◦ 演出 ◦ 指導

## ■ 作品審查

서울特別市 文化財委員會 第3分科委員會

## ■ 諮問委員

- 정병호: 문화재 위원회 3분과 위원
- 신찬균: 문화재 위원회 3분과 위원
- 이보형: 문화재 위원회 3분과 위원

## ■ 考證

김천흥: 예술원 원로회원

## ■ 構成 • 演出

박상옥: 국악인(선소리산타령 보존 회원)

## ■ 指導

윤평화: 국악인(선소리산타령 보존 회원)



